

# 주어진 환경 슬기로 극복하자

(農) (政) (隨) (想)

농수산부 식물방역과장 이 영 래

금년에는 기필코 풍년농사를달성해야 한다는 대명제아래 영농 단계별 시한영농의 철저한 추진으로 이제 제 3 단계의 모내기를 끝마칠 수 있게 되었다.

— ◇ — ◇ —

5월 초중순의 저온과 하순부터 계속된 한발로 약 1개월동안 한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가뭄을克服하는 총력전을 펴는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발은 있어도 한해는 없다」는 슬로건을 실감케 한것은 「하면 된다」는 각오와 신념의 결정체라 하겠다.

이제 7월부터 9월까지의 제 4 단계 병충해방제기간을 맞이하여 「풍년농사의 마무리는 병충해방제로」라는 기치아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병충해 박멸 작전을 펴야겠다. 특히 병충해로 인한 연간 감수량이 680만섬에 이르고 금액으로 환산할때 무려 560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반드시 퇴치하여야 하겠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간 계속된 흉작은 우리 농정에는 많은 시련을 안겨다 주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기상이변에 따른 냉해

로 무려 12억불의 귀중한 외화를 들여 1,700만석의 쌀을 도입하여야 하였을뿐 아니라 국민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온 주요인의 하나가 벼농사의 흉작임을 상기할때 수출위주의 공업우선정책을 추진해야만 하는 오늘의 현실이긴 하지만 경제적, 안보적 차원에서 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음미하면서 풍년농사를 위한 영농시책을 하나 하나 다져 나가야 하겠다.

금년의 병충해방제는 중견의 농약살포 위주의 방제에서 종합방제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였다.

즉 품종에서부터 농토배양사업과 경종법 개선 그리고 우수농약살포등을 관련한 종합병충해방제대책을 강구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 ◇ — ◇ —

지난날의 벼농사는 한발과 수해, 병충해 뿐 아니라 냉해, 백수현상까지 겪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이와같은 쓰라린 경험을 귀중한 교훈으로 삼아 야기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어지는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할때

우리의 최종 목표인 풍년농사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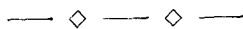
지난 77년에 주곡자급을 달성할 때에는 통일계품종의 보급만으로 녹색혁명을 성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품종은 물론 농토배양 사업에 의한 지력증진, 우수농약개발에 의한 병충해의 효율적 방제 등 종합영농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주곡자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제 2의 경제성장을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당면한 병충해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예방위주의 동시공동방제의 정착」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겠다.

동시공동방제는 방제시기가 유사한 주요병해충을 함께 묶어 공동방제하는 것으로서 노동력의 절감은 물론 방제효과를 최대한 기양할 수 있으며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기에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병충해로 인한 감수의 70%를 차지하는 목도열병은 병해충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으로서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예방위주로 방제하여야 하겠다.

흔히 우리는 공동의식이 결핍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뿐 아니라 막연한 기대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의 타성으로 젖어 있는 실정이며 병해충방제의 경우도 이와같은 구습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방위주 공동방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병충해가 혹시나 발생되지 않고 지나가지 않을까 또는 내는만 방제를 하면 그만이지 하는 사고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온 상황에서 이를 타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는 작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병충해가 한번 발생하면 전염병과 같이 확산한다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종전의 정성과 구습을 탈피하고 예방위주의 방제에 일하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풍년농사의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끝내야 하겠다. 물론 오늘날의 농촌은 이농현상이 급격히 일어나고 농촌에서는 이제 노인과 부녀자들이 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농어촌 후계자 육성을 통한 청소년 중심의 용역방제단을 파견, 병충해방제에 투입하고 농업기계화 시책의 추진과 더불어 防除機具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종합농정시책과 연관시켜 조화있는 병충해방제 등 영농시책을 구현하여야 하겠다.

금년 농사가 병해충방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풍년농사로 이어지고 주곡자급 기반을 구축하는 발판이 되고 복지농촌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